

비영리단체의 윤리 제1장

윤리학입문

2019. 5. 15/22

강사 : 박 찬 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강 의 주 제

현대윤리학의
핵심 쟁점과
주요 이론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문화 상대주의는 도덕 상대주의를 함축하는가?

◆ 발문:

“인간의 도덕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천차만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은 상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절대적(보편적)으로 옳고 그른 것(가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타당한가?



문화 상대주의는 도덕 상대주의를 함축하는가?

- ◆ “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도덕은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도덕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 ◆ 타 문화에 대해 자기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 (예: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비판) → ‘관용’ 강조
- ◆ 그럼 노예제도, 인종차별, 인신매매 등도 인정해야 하나?



문화 상대주의는 도덕 상대주의를 함축하는가?

1. 관례적 윤리적 상대주의 (관례주의)

- 서로 관습이 다른 사회간에는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다른 쪽의 잘잘못을 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신매매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가?

2.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 (주관주의)

-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자기 기준에 의해 남을 모욕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가?



관용의 의미에 대한 오해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시외버스 안이다. 대중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한 승객이 말했다. ‘제발 음악을 끄거나 좀 줄여주세요. 당신과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 생각도 좀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이에 운전기사가 답했다. ‘그렇소. 나는 당신과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소. 그러니 당신도 당신과 다른 취향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하지 않겠소?’

- ◆ 위 두 사람의 상반된 입장은 정당한 권리끼리의 대립인가?
- ◆ 그럼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의 대립은?
- ◆ 좀 더 분명한 예:

매우 특이한 취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아주 혐오스런 얼굴 유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의 얼굴을 한 대 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 특이한 취향을 좀 이해해 달라!’



자유와 권리라는 말의 오용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권리가 마치 동등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담배연기가 싫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함부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자유도 권리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권리라는 말의 오용이다.

권리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지, 인간의 자의(恣意)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리(사실은 월권)조차 존중해주는 것이 관용은 아니다. 그것 역시 관용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다.



윤리 상대주의의 결과

◆ 가치 상대주의가 함축하는 결과

1) 자기모순

“모든 진리(가치)는 상대적이다!” 단 이 명제만은
절대적으로 옳다? → 자기모순!

(ex. 거짓말쟁이의 역리 Liar's Paradox)

2) 약육강식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남을 설득할 필요도 남과
논쟁할 필요도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됨

* 상호 갈등이 생기면? → 강자의 물리적 힘만이 해결책

“여우와 토끼는 올바른 삶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거나 한 쪽아 다른 쪽을 잡아먹을 뿐이다.”



문화 상대주의의 진정한 함축은 타인 존중, 인간 존중의 정신!

- ◆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 타인을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것
- ◆ 일종의 자기희생 정신, 인간 존엄에 대한 신념 함축
→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연결
- ◆ 문화의 상대성 → 가치의 절대성



가치 상대주의 논란은 오해의 산물!

- ◆근본 규범과 파생 규범을 혼동한 결과
- ◆근본 규범의 절대성과 파생 규범의 상대성
- ◆근본 규범의 예?



윤리의 두 가지 차원

◆ 윤리는 필요악: 도덕, 윤리가 없는 사회는 없다.

- 자연적으로 생성, 규약에 의해 합의, 전통에 의해 전수 → 사람들간의 승인에 의해 출현한 모든 질서와 규칙 체계들을 포괄하는 개념

◆ 윤리의 두 가지 차원

- 특정 질서나 제도로서의 도덕·윤리(moral): 실정법
- 기본 정신이나 원리로서의 도덕·윤리(morality): 자연법

◆ 윤리에 대한 오해

- 도덕의 현상에만 주목: 記述的 윤리 → 도덕상대주의
- 도덕성의 원리에만 주목 → 공허한 사변적 윤리 이론
- 윤리학 = 제도로서의 도덕 + 원리로서의 도덕성(도덕형이상학)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 발문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타당한가?



도덕의 정당화와 관련된 물음과 대답

- ◆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 ‘그것이 길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다.’
- ◆ 도덕의 근거는 자기 이익?
- ◆ 조선시대 서당에서 이런 물음이 제기되었을까?
(비교: “見利思義, 見危授命” <논어>)
- ◆ 개인주의와 상업주의의 분위기



합리적 이기주의

- ◆ ‘이기심’과 ‘자기애’의 차이
자기애는 ‘현명한 상인’의 덕목
- ◆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련
(비교: A. Smith의 낙관과 Hobbes의 비관)
- ◆ 눈앞의 욕망, 자존심, 분노, 맹목적 공포, 적의 < 냉철한 자기애



합리적 이기주의의 장점

- ◆ 합리적 이기주의는 솔직하고도 현명한 노선
 - 지나친 도덕주의, 이상주의는 우울증이나 위선을 낳을 수 있음

물론 이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없지만, 이를 정확히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 제대로 적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 공정함과 정직, 이해심과 상호 존중의 미덕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요구만으로도 이미 죄책감을 갖는다. 그들은 말한다.

“모두가 이기주의자라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답은 이렇다.

“남들에게 신경 쓰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쓴다면, 불행한 사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 <요제프 키르쉬너>



합리적 이기주의란 상인의 윤리

- ◆ 시장(市場)과 시민(市의 民), 곧 상인
- ◆ 시장이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 ◆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상인의 윤리 (예: TV쇼 '진품명품'의 장면)
- ◆ 하지만 우리는 상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 ◆ 상인의 윤리는 시장에서만 타당성을 지닐 뿐
- ◆ 자기 이익에 근거한 도덕의 특징
도덕 < 자기이익 → 가언적 도덕



도덕과 자기 이익이 충돌한다면?

- ◆ 자기 이익에 근거한 도덕은 도덕과 자기 이익이 충돌할 경우, 자기 이익을 선택할 것
- ◆ 그럼 어떻게 ‘도덕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나? 不可!
- ◆ 상인에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

철수는 군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의 젊은이이다. 공교롭게도 지금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런데 철수를 아끼는 외국의 한 친지가 밀항선을 준비해 놓고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철수는 이 나라의 모든 청년이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무 내지 법(규범)을 위해 이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까지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의무나 법(규범)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도덕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는 것!

- ◆ ‘도덕적’이라는 말의 상식적 용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자기이익 중심’이라는 말과 반대 의미로 사용됨
- ◆ 도덕이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어떤 것’ (disinterestedness)
- ◆ 도덕이란 ‘설사 자기희생이 따르더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아닌가?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모든 행위의 동기는 자기만족감 아닌가?

◆ 발문

“‘순교’와 같은 (종교적) 희생적 행위도 크게 보면 결국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한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쾌락에 놓여 있다.”

이 말은 타당한가?

쾌락주의자의 전형적 주장

“남에게 도움을 주는 데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사회에 봉사하는 데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봉사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거지에게 동냥을 하는 행위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한 거야. 젊은 친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그게 좋아 그렇게 한다네. 그건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그게 좋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창조의 법칙이야. 만일 사람이 쾌락보다 고통을 더 좋아한다면 인류는 진작 멸망했을 거야.”



쾌락의 의미와 쾌락주의

- ◆ 쾌락 →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뒤따르는 심리적 상태
- ◆ 욕구의 충족이 목적인가, 그 욕구 충족의 결과인 쾌락(쾌감)이 목적인가?
- ◆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나?
(예: 미식가, 난봉꾼, 일부 자선사업가)
- ◆ 과연 인간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쾌락인가?
Yes! (쾌락주의자)
→ “겉보기의 이타적 행위 속에도 실은 ‘자기 만족감’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다.”
-> **심리적 쾌락주의**



심리적 쾌락주의의 오류

- ◆ 모든 행위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쾌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자체로 행해지기를 원하는 행위들이 있다. 1차적 목적은 욕구의 충족이고, 쾌락은 그 욕구 충족의 결과로 뒤따르는 부산물일 뿐.
- ◆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통해 쾌락을 얻으려면, 쾌락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타인의 행복을 원해야 한다.
- ◆ 쾌락을 의식하지 않은 중립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쾌락을 얻는 좋은 방법
- ◆ 쾌락 그 자체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는 오히려 쾌락을 낳기 어렵다.

→ ‘**쾌락주의의 역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 쾌락인가?

쾌락기계 속에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는 마취 상태에 있으며, 전극 단자가 그의 머리에 붙어 있다. 이 장치를 통해 온갖 행복감이 느껴지도록 알맞게 제어된 전기 자극이 그의 뇌 속 쾌락중추에 전달된다. 이제 이 사람은 평소 꿈꾸어왔던 모든 종류의 행복, 예컨대 스포츠에서의 영웅, 영화의 스타, 위대한 정치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체험 및 가장 아름다운 애인과의 로맨스를 포함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이것들을 정말로 체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극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기계를 통제하고 있는 의사는 이 사람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꽤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기계장치가 꺼짐과 동시에 이 사람은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 당신에게도 이 기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자. 당신은 기꺼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겠는가?



정신병자는 행복한가?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정신병자들은 대체로 사교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냉혹하고, 자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깊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정신병자들은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불분명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으며, ‘치료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지도 분명하지 않다. (...)

정신병자는 비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무관심한 반면, 자기 자신의 삶은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병자는 망상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다른 징후를 드러내지 않는 한, 종종 매력적이고 지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정신병자는 행복한가?

조사연구에 의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정신병자들이 대단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그들의 유명한 능력, 즉 자기가 진정 후회하고 있으며 그런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에게 기회를 한번만 더 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정신병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비심, 동정심,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는 또 행복을 위와 같은 성향의 소유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증거가 된다.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진정한(현명한) 쾌락주의는?

우리의 감정을 잘 분석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은 공간만을 차지합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는 작은 문제조차도 매우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순간, 당신은 그들 역시 당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넓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당신 자신의 문제가 설령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화가 훨씬 커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일 당신이 자기 자신만을,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덜 행복해지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 만일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타인에 대해 염려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신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용서』)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동정심의 윤리

◆ 쇼펜하우어

도덕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의 차이는 자아의 크기(cf. 小我와 大我), 혹은 자기와 타인의 간격의 정도

◆ 諸法無我的 깨달음은 가능한가?

우리는 외면에 따라서만 본다. 내면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척 피상적이고, 대부분은, 심지어 핵심적인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수께끼일 뿐이다. 칸트의 말처럼, “자아는 스스로를 사물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직 현상으로서만 인식한다.”



동정심의 윤리

◆타인과 나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

◆세계의 참 모습은 ‘모든 영혼이 하나’라는 것

→ 윤리의 형이상학적 기초



동정심의 윤리

동정심은 윤리학에서의 거대한 신비이다. 자기 조국을 위해 죽음을 감수하는 사람은 개인적 현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그것을 통해 그가 계속 살아 있을 자기 민족에게로, 심지어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까지 확장한다. 이들에게 그는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에게 죽음은 단지 눈을 깜박거리는 정도로 여겨진다.

다른 모든 존재를 언제나 비-아 [타자] 로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참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타인이란 본래 환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대적 존재성만을 인정한다. 타인은 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자신과 비-아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차이와 깊은 간격을 남겨둌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는, 죽음에 이르러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실재성과 모든 세계가 침몰하는 것을 본다.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생명을 갖는 모든 것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살아있는 모든 현존재와 하나가 된 자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현존재의 작은 부분만을 잃는다. 그는, 그 자신이 언제나 인식하고 사랑한 다른 모든 존재 속에서 계속 살아 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을 다른 모든 존재의 의식에서 분리하는 착각은 사라진다.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죽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목적론과 의무론

	목 적 론	의 무 론
특징적 경향	현실주의	이상주의
궁극 목적	행복한 삶	의로운 삶
진리 인식 방법	경험적 (귀납법)	이성적 (연역법)
주요 관심	목적의 성취 / 일의 효용성	올바른 절차 / 정당한 원칙
대표 이론	공리주의	칸트 윤리

공리주의

- ◆ 공리주의란?

- ‘쾌락주의’와 ‘합리적 이기주의’에 ‘보편주의’의 요구가 결합한 것(개인윤리→사회윤리)

- ◆ 상인들의 모임(자본주의 사회)을 위한 윤리

- ◆ 각 개인들 간의 이익의 충돌, 사익과 공익의 충돌 시 절충과 조화를 모색함

→ **기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문제점

(1) 심리적 쾌락주의에서 오는 문제: 자연주의적 오류

(‘모두가 쾌락을 추구한다’

→ ‘모두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판단’에서 ‘가치판단’으로의 비약

(2) 합리적 이기주의에서 오는 문제: 결합의 오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각자가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타산의 원리’와 ‘박애의 원리’ 간의 충돌



공리주의의 문제점 (1)

자연주의적 오류의 예

“어떤 대상이 보일 수 있다는(visible)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대상을 본다(see) 것이다.
어떤 대상이 들릴 수 있다는(audible)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듣는다는(hear)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desirable)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바란다는(desire)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J.S. 밀,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문제점 (2)

결합의 오류: 개인의 행복 ↔ 사회의 행복

- 행복이란 한 개인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인데 왜 인류 전체의 행복 달성이 개인에게 의무로 부과되어야 하는가?
-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은 자기 자신의 행복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걱정해야 하는가?

-> 시즈윅(H. Sidgwick)의 절충

“우리 행동의 ‘자연스러운’ 목표는 개인적인 행복이며,
‘의무로서의’ 목표는 보편적인 행복이다”



공리주의의 문제점 (3)

결과 계산의 난점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쟁 때 어떤 항목을 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시점에서 측정할 것인가?
- “인생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 우리는 모든 행위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행위할 수는 없다.
- > 규칙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경향을 가진) 규칙에 적용 [간접 공리주의]
- 행위 공리주의 -> 직접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태생적 한계

- ◆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
→ 정언적 윤리 아닌 가언적 윤리
- ◆ ‘이익’이나 ‘쾌락’이 도덕의 근거일 수 있는가?
자기희생적 규범에 따라야 할 이유를 왜 (사랑, 신념, 정의가 아니라) 굳이 이익이나 쾌락에서 찾으려 할까?
- ◆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인간의 기본권, 인간 존엄성 등)를 다루기에 적합한 이론 아님
→ ‘역 직관성’의 문제



공리주의의 태생적 한계 (역직관성)

어느 병원에 5명의 환자가 누워 있다. 이 중 4명은 각기 위, 간, 심장, 신장 한 가지씩의 내장 기관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환자들이다. 이들은 장기 이식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신경 계통의 이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이긴 하지만 모든 내장 기관에는 이상이 없다. 이 때 이 병원을 방문한 어떤 공리주의자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리에 의하면 전신마비 환자의 장기를 나머지 네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이 살고 네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네 사람이 사는 편이 그 행복의 총량에 있어서 더 크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입법이나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이론

“공리의 원리에 대한 논의는 공공정책에 관한 주제에서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처음부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를 특징짓는 질문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아니다.”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동 기 주 의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 선이란?

→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

◆ 선의지란?

→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 도덕법칙이란?

→ ‘순수 이성의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 등)



형식주의

- ◆ 도덕법칙의 기능: 우리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즉 도덕적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사해보는 틀
- ◆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
- ◆ 행위의 목적(대상)을 염두에 두면 으레 자기애나 자기 행복의 동기가 개입하게 마련



엄 숙 주 의

- ◆ 도덕의 특성은 그것이 당위적 명령(의무)으로 되어 있다는 점
- ◆ 그 이유는 인간이 (경향성을 지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Pflicht)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정언명법

- ◆ 가언명법(조건적 명령)과 정언명법(무조건적 명령)의 차이
- ◆ 정언명법의 특징: 조건절(if 절), 즉 전제된 상위의 목적이 없음
- ◆ 도덕적 명령은 도덕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명령



자 율

- ◆ (의지의) 자유: 나의 의지가 어떤 외적 세력(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 자기의 타고난 경향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것
- ◆ 도덕법칙은 남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어떤 자기?)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타율이 아닌 자율
- ◆ 자기의 경향성(본능적 욕구, 자기애 등)에 따르는 행위? → 자유로운 행위 아님
- ◆ 자율이란 **현상적 자아**(도덕법칙을 따라야 하는 나)와 **예지적 자아**(도덕법칙을 부과하는 나) 사이의 관계(후자가 전자를 통제함)를 나타내는 개념



인격과 인간 존엄성

- ◆ 인격(Person): 예지적 주체의 담지자
- ◆ “보편적 입법 의지로서의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 →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이라는 이념”
- ◆ 존엄(Würde)이란 단지 교환적 가치(가격)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 쓰이는 표현
- ◆ 따라서 존엄한 존재(인격)는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함
- ◆ 인간은 신성의 씨앗을 지닌 존재



◆ 의무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물음은 사이비 물음

- 정언명법을 가언명법으로 바꾸려는 물음이기 때문.
- 즉 무조건적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그 자체가 궁극 목적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행하는 어떤 다른 이유 내지 상위의 목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조건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
- 도덕은 원래 당위이며, 현실이 아닌 이상(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은 넌센스)
- 우리가 할 일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도덕과 무관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왕국을 향해 그냥 한 발 내딛는 것

1

상대주의

2

이기주의

3

쾌락주의

4

동정심의 윤리

5

공리주의

6

칸트 의무론

7

덕 윤리

덕 윤리

◆ 덕 윤리(virtue ethics)의 문제의식

- 근대 '의무 윤리(duty ethics)' 또는 '원칙의 윤리'에 대한 불만
- 인간의 삶은 풍부하고 복잡 -> 윤리 문제는 단일한 제1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

◆ 고대의 덕 개념 부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모델로부터 큰 영향

- 도덕성은 이론적 접근으로 해명될 수 없다.
- 도덕은 우리의 욕구 및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감수성이나 세련된 식견이 중요



전통적 덕 윤리

◆ 전통적 유교 윤리

- 공동체 윤리, 가족주의, '온 세상이 한 집안'(天下一家)
- 혈연적, 지연적 사랑과 배려 중시

◆ 그리스 시대의 덕 윤리

- 도덕적 이상: Polis의 좋은 시민이 되는 것
- 시민의 덕 함양 중시

◆ '개인'(小) or '인류'(大) < 중간규모 공동체(中)

- 생물학적 본성상 인간의 이타심은 소규모 집단까지만 미침
- 이러한 생물학적 본성의 한계를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즉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장치 -> 도덕, 윤리

◆ 덕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 -> 덕윤리, 덕교육



근대 윤리의 문제점

◆ 근대 윤리의 등장 배경

- 근대 시민 사회의 등장 -> 개인주의, 자유주의, 익명적 다수로 구성된 거대 사회 (중간규모의 세계 해체)

◆ 근대 윤리의 특징

- 원리 중심: 개별 행위자나 집단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 의무 중심: 자연스런 도덕적 감수성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어야

◆ 근대 윤리의 약점

- 실천력 떨어짐 (특수 < 보편, 구체적 < 추상적, 자연적 감정 < 이성적 추론, 도덕적 성격 < 법적 성격)
- > 과거 덕 윤리의 실천적 성격 부활시키자!

덕 윤리와 배려 윤리

◆ 덕 윤리의 특징

- ‘행위’ < ‘행위자’
- 행위의 법칙, 규칙, 원리 < 행위자의 성품, 성향, 동기
- 무엇이 의무이고, 허용되며, 옳고 그른지
< 무엇이 훌륭하고, 칭찬할만하며, 좋고 나쁜지

◆ 배려 윤리(care ethics)의 특징

- 개인적 판단, 결단 < 인간관계의 맥락
- 추상적 상황에서의 일반적 윤리현상
< 구체적 상황에서의 개별적 윤리현상
- 인위적인 의무감 < 자연적인 감정



의무 윤리와 덕 윤리의 조화

◆ 덕 윤리가 근대 윤리를 대체해야 한다?

- 우리는 근대 시민사회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음 -> 의무 윤리의 토대 위에 덕 윤리의 장점 수용이 바람직
- 덕 윤리를 토대 삼기 힘든 것은 상대주의의 위험성 때문
- 덕이란 불가불 특정 사회의 전통, 관행, 문화와 떼어 수 없는 관계

=> 근대 윤리의 기본 원칙(자유, 평등, 인간존엄, 행복) 바탕 위에 덕 윤리(타인 배려의 품성 교육 및 습관화 교육) 수용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찬구